

# 광주에 '24시간 어린이집' 생긴다

■市, 맞춤형 보육서비스 다양

## 맞벌이 부부 위해 자치구별 1곳씩 지정 시간 연장하고 휴일에도 아이 위탁 가능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어린이 집 등 광주시의 보육 서비스가 다양해진다. 광주시는 13일 "24시간 어린이를 맡아 줄 어린이집을 각 자치구별로 1곳씩 지정, 예산을 지원하는 등 부모들의 형편에 맞춰 시간연장·휴일·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4시간 보육을 위해 기존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다음 달까지 자치구별로 1곳의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

한다는 계획이다. 24시간 어린이집은 수면실과 급식시설·야간 프로그램 등을 갖추게 되며, 시는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시간연장·휴일·방과후 보육은 불

른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마련된다. 시는 50개 어린이집을 밤 9시까지 어린이를 돌봐주는 시간연장 어린이 집으로 지정,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또 북구 '명문'·'튼튼' 어린이집 등 2

곳은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일일과 공휴일에도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맡기도록 한다. 이밖에 4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도우미들은 보육가정의 부모가 질병이나 야근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 각 가정을 방문, 예료를 해결한다. 만 12세 이하 어린

이를 둔 가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2시간 이용이 기본이다. 기초수급생활 가정은 한달 80시간 이내에서 무료이며 차상위계층 가정은 시간당 1천원, 일반 가정은 시간당 5천원을 내면 된다. 장애 어린이나 아토피 질환 어린이 등 특별한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보육 서비스 제고를 위해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120억원)▲교구 교체비 지원(6억원)▲보육교사 최저임금수준 향상(민간시설 교사 월 82만8천원)▲보육교사 전문교육 강화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문:광주시 사회복지과(613-3250)·여성청소년정책실(613-2282)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개정 준비 비뚤 하 옥 현 광주지방경찰청장 "사이버범죄 적극 대처하고 인라인·기마 순찰대 창설"

"도시형 치안 여건에 맞는 여건을 개발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7월 개정을 앞두고 개정 준비에 바쁜 하옥현(52·사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1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



이었고 밝혔다. 그는 국내 경찰간부(경무관 이상) 중 유일하게 컴퓨터 공학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창설한 장본인. 지난 96년~2000년 까지 프랑스 주재관사 이버테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귀국 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창설해 초대 센터장을 맡았다. 애초 경찰청에 인력 128명을 요청했지만, 인원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69명으로 시작했다. 각 부처 관계자들이 사이버테러와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이버범죄 수사의 기반과 토대를 마련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그는 2000년 이후 각 대학원과 기업체·국가기관에 강의를 나갔다. 2005년엔 고려대에서 '국가사비범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론'을 주제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담양 출신인 하 청장은 아직도 발품을 팔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열리는 사이버 관련 학회 등에 참석해 선진 기술과 정보를 배우고 있다. 또 '사이버센터 정보전 학회'를 만들어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사진=고경식기자 ksgo@

## 지하철엔 사랑이 넘친다네

공연·이미용 등 자원봉사 500여명 활동

광주 지하철에 자원봉사자들이 몰리고 있다. 13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공사와 자매결연 등을 통해 활동 중이거나 활동 예정인 자원봉사자는 500여명. 이들은 무료 이·미용 서비스, 안전도우미,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을 돕고 있다. '총장라이온스클럽', '광주정수여성라이온스클럽'의 모두 20여명 회원들의 '활약'은 가장 두드러진다. 이들은 금남로4가역에 개소한 무료 이·미용소에서 매일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오후 6시 이상 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발 등 머리손질을 해주고 있다. 셋째 주 월요일에는 남구 시니어클럽의 '실버하모니악단'이 감미로운 음악을 선사한다. /김주정기자 jjnews@

17개 교회 소속 250여명으로 구성된 '광주지하철 선교회 자원봉사단'과 60세 이상 노년층 34명으로 구성된 '실버도우미'들은 지하철 안전 지킴이들이다. 이들은 2~3명이 1조로, 이용객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 장애인·노인들의 탑승 등을 돕고 있다. 광주 지하철이 지향하는 '문화지하철'을 이끌어갈 지하철 예술무대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19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에 돌입한다. '실버하모니악단', 마술단체 'J-MAGIC', '레일아트', '메트로문화센터', '사람의 자선음악회' 등 관계자 200여명이 상무역, 농성역, 양동시장역, 금남로4가역, 남광주역 등에서 정기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전통공예문화학교 입학식 13일 오후 광주시 북구 전통공예문화학교 입학식에서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부터 12월20일까지 10개월 동안 계속되는 이번 강좌는 도자기반, 소목반, 탕화반, 천연염색반 등 4개 강좌에 총 120명이 참가한다. <북구청 제공>

## 광주 일부 방범 CCTV '무용지물'

적외선 기능 없고 야간 촬영 잘 안돼 무다이얼 긴급전화도 특하면 오작동

광주시내 일부 방범 장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일부 방범용 CCTV는 적외선 기능이 없고 야간 촬영도 어려운데다 편의점·노래방 강도 예방 차원에서 설치된 무다이얼 긴급전화도 오작동이 잦다. 1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시내 16개소에 32개의 방범용 CCTV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설치된 CCTV도 모델이 서로 다른데다 모니터가 지구대 또는 경찰서

상황실에 설치되는 등 각 경찰서별로 운용 형태도 제각각이다. 특히 일부 CCTV는 야간에도 사물 식별이 가능한 적외선 기능이 없거나, 빛이 없으면 식별이 어려워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방범용 CCTV 설치비와 운용비를 부담하는 각 자치구들이 예산부족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값싼 CCTV를 강도 발생시 긴급 신고를 위해 광주 시내 200여 곳의 노래방·편의점 등에

설치된 무다이얼 긴급전화도 오작동이 잇따르고 있다. 무다이얼 긴급전화는 수화기를 든 후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4~5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관할 지구대 지정 전화기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범 장비. 하지만, 잦은 오작동으로 지구대별로 하루평균 20차례 긴급 출동하는 등 혼선이 극심하다. 광주 동부경찰 A지구대의 경우 현재 노래방·편의점·주유소 등 80여 곳이 긴급전화에 가입돼 있으며, 이들 업소와 관련된 오작동 출동만 하루 평균 10여 건에 이르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 B지구대도 45개 편의점에서만 하루 20여 건의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북구 기업사랑 운동' 발대

### '경제 아카데미'도 첫 개최

광주시 북구청은 오는 15일 오후 3시 3층 회의실에서 '북구 기업사랑운동 발대식'을 열고, 제1회 '북구 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북구 기업사랑 운동'은 북구청이 지역 기업과 행정,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발대식에서는

관계자 250여명이 참가해 유기적인 협력 관계로 동반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발대식 후 열리게 되는 '북구 경제 아카데미'에서는 이영권 세계화전략 연구소장이 '세계 경제 흐름과 우리 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를 한다. 한편, 북구청은 오는 26일부터는 구청 앞 광장에서 기업제품을 전시·판매하는 'BUY-DAY의 날'을 운영 하는 등 지역 기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 "온라인 떠도는 내 주민번호 찾아라"

내달 11일까지 '클린 캠페인'

광주시는 사이버 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 '사이버 공간에 숨어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를 실시한다.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광주시(www.gwangju.go.kr)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 블로그(네이버·blog.naver.com/happymogaha·다음·blog.daum.net/happymogaha), 전자신문사 및 기타 포털 등 각 사이트 고객센터 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민번호(ID) 클린 캠페인'

참여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어 '주민번호 이용 내역 확인서'를 선택하고 자신의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사이버 상에서 실명확인 등에 사용된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조회한다. 이를 통해 2001년 이후 국내 2만여 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휴대 계정(ID·주민번호) 등에 대해 회원탈퇴 등을 통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 문:광주시 민간협력과(613-2914) /김주정기자 jjnews@